

生死觀에 對한 小考

秦 元 日

目 次

- I 序 言
- II 諸子百家 文人の 生死觀
 - 1. 孔子 2. 老子 3. 列子 4. 莊子
 - 5. 伯夷叔齊 6. 秦始皇 7. 漢武帝 8. 陶淵明
 - 9. 李太白 10. 杜子美 11. 白樂天 12. 蘇東坡
 - 13. 周茂叔 14. 程明道 15. 王陽明
- III 忠臣義士の 生死觀
 - 1. 閔泳煥 2. 安重根
- IV 佛敎의 生死觀
 - 1. 茶毗文 2. 阿含經
- V 結 語

I 序 言

胎生·卵生·濕生·化生の 四生을 苦海라고 한 것은 四苦 八苦가 있기 때문이다. 生苦·老苦·病苦·死苦를 四苦라하고 四苦에 愛別離苦·求不得苦·怨憎會苦·五陰盛苦를 합하면 八苦가 된다. 人間은 이 八苦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苦海에 빠진 衆生이라고 하는 것이다.

四苦 中에서도 死苦가 가장 큰 것이라 해서 人間大事라고 했다. 人間은 단 아니라, 온갖 動物은 죽음에 대하여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죽음이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未知의 世界이다. 反對로 生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人間은 生에 대해서 愛着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生을 營爲하기 위하여 제 각기 부지런히 努力하는 것이다.

各者가 맡은바 任務에 대해서 責任을 完遂한다면 그 社會國家는 發展될

것이며 民族은 繁榮할 것이므로 個人이 행복한 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은 勿論이다. 만일에 八苦中에서 病苦나 求不得苦가 아니면 愛別離苦를 克服하지 못해서 고민한 끝에 突破口를 찾지 못하면 부모 조상과 사회를 원망하고 畢竟에는 自害하는 行動을 擇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行爲를 事前에 防止하고 國民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하기 위해서 生死觀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目的이 있기 때 문에 東洋古代의 聖賢과 文人 그리고 우리 나라 殉國先烈 및 佛敎의 生死觀順으로 연구해 보려고 한다.

II 諸子百家 文人の 生死觀

1. 孔子의 學說

孔子는 鬼神이나 死後의 問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했다. 子路가 공자에게 生死와 鬼神에 대한 것을 물은 즉, 孔子가 答하기를, 사람에 대해서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긴단 말이나? 生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死에 대한 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未能事人焉能事鬼未知生焉知死)라 했고, 또, 宋나라 司馬桓魋가 공자를 殺害하려는 橫暴에 대해서도 泰然自若하게 天이 나에게 德을 주었거늘 「桓魋」 너는 나를 어떻게 하려느냐 했으며, 天命에 대해서 말하기를, 天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春夏秋冬의 四時를 運行하고 아무런 말이 없어도 많은 물건이 생겨난다. 君子에게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첫째 天命을 두려워하고, 둘째 大人을 두려워하며, 셋째 聖人의 말을 두려워한다. 天命을 알지 못하면 君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天何言哉君子有三畏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不知命無以爲君子也). 또, 生死에 대해서는 命이 있고 富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死生有命富貴在天.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으며 모르는 것을 배워서 잘 알아야 한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라고 해서 悠悠自適하게 生死苦樂을 度外視한 境地에

到達한 聖人을 孔子라 하겠다.

2. 老 子

老子道德經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약하며 죽으면 굳어져서 뻠뻠하고 초목도 살아서는 부드럽고 연하며 죽으면 바싹 말라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고 뻠뻠한 것은 죽음의 무리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군사도 강하면 지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는 것이다. 강대한 것은 밑에 자리잡고 유약한 것은 위에 자리 잡는 것이다. (人之生也柔弱其死也堅強草木之生也柔脆其死也枯槁故堅強者死之徒柔弱者生之徒是以兵強則不勝木強則折強大處下柔弱處上)

또, 세상에 나오면 삶이요 세상에서 들어가면 죽음이다. 오래도록 사는 사람이 열에 셋이라면 오래 못살고 죽는 사람이 열에 셋이기는 하나, 잘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사지(死地)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한 열에 셋이나 된다.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두텁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잘 섭생(攝生)하여 사는 사람은 물으로 가도 사나운 외뿔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도 무기에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외뿔소가 그 뿔로 떠발을 곳이 없어지고 범이 그 발톱으로 할킬 곳이 없어지며 무기가 그 날(刃)을 델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사에 대해서 구애 되는 일이 없으므로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出入死生之徒十有三死之徒十有三人之生動之死地亦十有三夫何故以其生生之厚蓋聞善攝生者陸行不遇兕虎入軍不被甲兵兕無所投其角虎無所措其爪兵無所容其刃夫何故以其無死地)

지극히 강한 것은 지극히약한 것으로서 極과 極은 一致하여 모든 것을 뛰어난 境地에서는 生死도 없다는 것이다.

3. 列 子

列子は 죽음에 대해 슬퍼할 것이 없다 해서 말하기를, 살고 싶어할 때

에 사는 것이 天福이며 죽고 싶어할 때에 죽는 것이 天福이다. 精神은 天의 分이요 해골은 地의 分이다. 天에 屬한 것은 맑으면서 흩어지고 地에 屬한 것은濁하면서 集合된다. 精神이 形体를 떠나서 제 자기 眞에 돌아가는 것을 鬼라고 한다. 鬼는 歸로서 자기의 진짜 주택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또, 죽음을 歎美하기를, 위대하구나! 죽음이여! 君子는 거기에서 休息하고 小人은 거기에 얽드린다. 좋구나! 옛적부터 죽음이란 仁者는 거기에서 쉬고 不仁者는 거기에 얽드린다. 죽음은 德에 돌아가는 것이다. 옛적에는 死人을 歸人이라고 했다. 死人을 歸人이라고 한다면 生人은 行人이 될 것이다. 行人이 자기 집에 돌아갈 줄 모른다면 집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列子는 이와같이 죽음을 人類의 安息處라고 생각해서 좋아했던 것이다.

4. 莊子の 死에 대한 비유說

莊子가 楚나라로 가는 도중 길가에 사람의 骸骨이 露出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해골을 툭툭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그때는 生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고 眞理를 忘却했다가 이같은 꼴이 되었는가? 또는 亡國의 신하로서 역적 모의를 하다가 피살 되어 이와같은 꼴이 되었는가? 또는 포악한 행동을 하고 부모 처자의 명예를 훼손시키지나 앓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자살해서 이런 꼴이 되었는가? 또는 눈 내리는 밤에 길을 가다가 얼어죽어서 이러한 꼴이 되었는가? 또는 늙어서 병들어 죽은 꼴이 이모양인가? 하면서 해골을 베개로 베고 누워 잠들었다

밤중에 해골이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辯士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데, 人生은 모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해를 입고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죽으면 이와같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당신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어하는가?

莊子가 “그렇다! 듣고싶다!” 한즉, 해골이 말한다.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위에 君主가 없고 밑에 臣下가 없으며 春夏秋冬 四時가 없고 언제나 봄과 가을철 뿐으로서 不便한 것이 조금도 없으므로 天子임금의 樂이

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莊子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하기를, 내가 命을 해서 그대의 形貌를 만들고 그대의 뼈와 살과 피부를 만들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 후, 그대의 고향 부모 처자가 아니면 친구에게 돌려보내 줄 터이니 그대의 생각이 어떠한가 한즉,

해골은 얼굴을 찡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어찌 南面한 임금의 樂 보다 더 좋은 樂을 버리고 다시 人間에 나가서 고생을 하란 말인가 하였다.

莊子は 죽음에 대한 것을 이와같이 관찰한 것이었다.

또, 莊子は 그 妻가 死亡했을 때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걸터앉아서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問喪客이 와서 이 광경을 보고 그를 힐책한즉,

莊子가 말하기를, 생각해보건대 나의 妻라는 인간의 그 生命이 원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통이 없었으며 해골을 만들만한 氣體도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氣體가 생기고 기체가 변해서 形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또 변해서 죽었으니 春夏秋冬이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무엇을 슬퍼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제 나의 아내는 廣大無邊한 天地에 침실을 정하고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었으니 무엇이 슬프다고 痛哭을 하란 말이나? 하였다.

5. 伯夷 叔齊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紂王을 征伐할 때 伯夷 叔齊가 諫하기를, 父王의 葬禮도 지내기 전에 戰爭을 하고 있으니 孝子라 할 수 있겠는가? 신하로서 君主를 죽이는 것을 仁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武王의 左右侍臣이 伯夷 叔齊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太公이 그들을 義人이라 하여 살려보냈다. 伯夷 叔齊는 이미 捨生唱義하여 身命을 아끼지 않고 仁을 力說하였다. 太公때문에 목숨을 보전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武王이 紂王을 정벌한 후 國號를 周라고 했다. 殷나라 사람으로서 周나라 곡식을 먹는 것은 백성 된 道理가 아니라 하여 首陽山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餓死의 境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採薇歌를 지었다.

서쪽에 있는 수양산에 올라가 고사리를 캐먹고 있다. 폭력으로써 나라를 얻으면 폭력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구나! 염제신농씨와 순임금이며 하나라 우임금 같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나 버렸으니 나는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인가? 아! 슬프다! 나는 죽는다.

(登彼西山兮採其薇矣以暴易暴兮不知其非矣神農虞夏忽焉沒兮我安適歸矣又嗟徂兮命之衰矣)

伯夷 叔齊는 드디어 首陽山에서 餓死했다. 他民族에서는 볼 수 없는 生觀이라 하겠다.

孔子가 찬양하기를, 仁을 求하여 仁을 얻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하였다.

6. 秦 始 皇

六國을 쳐서 天下를 統一한후 北으로 匈奴를 정벌하여 萬里長城을 쌓고 學者의 비난을 막기 위해서 焚書坑儒했으며, 壯大華麗한 阿房宮을 渭水의 南쪽에 짓고 많은 離宮을 지었다. 아름다운 宮女 三千名을 두어 極度の 歡樂을 누리고, 丞相 李斯를 비롯한 滿朝百官이 그의 號令一下에 手足같이 잘 움직여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큰 걱정과 슬픔은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方士 徐芾에게 不死藥을 求해오라고 命했다. 始皇帝는 疾病이 위독해서 死境에 達했을 때에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者를 미워했다는 점으로 봐서 天下英雄이라는 稱을 받고 있던 그도 죽기를 싫어하는 人間의 共通의인 弱點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仙藥이 오기도 전에 그는 永遠不歸의 客이 되었다.

7. 漢 武 帝

漢室中興을 위해서 內治 外政에 힘쓴 結果 國威를 宣揚했으나 晩年이 되어 秦始皇과 마찬가지로 죽기를 싫어했다. 漢武帝 그는 方士 公孫卿의 말에 依해서 神仙樓라는 큰 宮闕을 지어 그 앞에 銅으로 하늘높이 美露臺를

만들어 세우고 그 위에는 仙人掌이라 해서 玉으로 만든 이슬 받는 그릇을
 넣어둔후, 밤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 마시면 長生不死한다는
 말을 믿고 實踐에 옮겼으며, 蓬萊·方丈·瀛洲의 三神山을 만드는 등 오래
 살기를 願했지만 결국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黃泉을 갔다는 것이다.

8. 陶淵明

그의 生死에 대한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生이 있는 곳에는 死가 있는 것이므로 인생은 태어나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 때까지 같이 살
 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혼백은 흩어져 어
 디를 갔는지, 시체는 마른 나무 덩이와 같구나! 어린 아이는 죽은 아바
 를 부르며 슬피 울고 친구는 찾아와서 나의 시체를 어루만지면서 통곡을
 한다. 죽은 뒤에 생전의 이해 관계를 어찌 알 수가 있으며 시비곡직을 어
 떻게 알겠는가? 죽어서 천년 만년이 지나간 뒤에는 생전의 빈부귀천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有生必有死早終非命促阨壽同爲人今且在
 鬼錄魂氣散何之枯形寄空木嬌兒索父啼良友撫我哭得失不復知是非安能覺千秋
 萬歲後誰知榮與辱)

9. 李太白

春夜宴桃李園序에 우주는 만물의 여관이요 세월은 백대에 지나가는 나
 그네이다. 인생은 허망하기가 꿈 속과 같으니 즐겁게 살아본다 하지만,
 그 얼마동안이나 되리요! 옛사람이 촛불을 켜놓고 밤이 새도록 놀았다는
 것은 참으로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 하겠다. (夫天地者萬物之逆旅光陰者百
 代之過客而浮世若夢爲歡幾何古人秉燭夜遊良有以也)

또 生死에 대한 그의 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잠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며, 죽음이란 객지에 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
 다. 우주는 한 채의 여관집에 지나지 않고 몇 억겁이 경과되면 천지가 변

해서 월세계에서는 토끼가 약을 짓고 해가 뜬다는 부상(扶桑)도 뭘나무로
 변해버리니 슬픈 일이라 하겠다. 죽어 백골이 되면 적막해서 말 한 마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청산에 푸른 소나무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봄이
 온 줄을 어찌 알 수가 있으리요! 생전과 사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니 살아서 부귀영화가 죽은뒤에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生者爲過客死者爲歸人天地一逆旅同悲萬古塵月兎空擣藥扶桑已成薪白骨寂
 無言青松豈知春前後更嘆息浮榮何足珍)

인간 일생이 꿈과 같으니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月世界와
 地球가 변화하는 것이므로 우주도 허망한 것인데, 인간의 생사 같은 것을
 논할 것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그는 생사를 達觀한 것이었다.

10. 杜 子 美

그의 夢李白이란 詩에,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니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흐
 를 뿐이며, 살아서 이별한즉 만나고 싶은 생각이 늘 간절하구나! 강남
 땅 습기 많고 병들기 쉬운 곳에서 그대가 떠난 뒤에 소식이 없으니 적막
 하기 짝이 없네! 세상을 떠난 그대를 꿈에서 만나본즉, 잠이 깨고 눈을
 떠도 그대의 생전 모습이 눈 앞에 완전하구나! 그대 생전의 넓이 아니리
 라! 머나먼 곳에 간 그대가 어떻게 올 수가 있으랴! 그대의 넓이 온다
 면 단풍들었던 나무잎도 푸른 생기가 돌고 넓이 떠나면 관산 땅이 검은
 구름으로 막혀버린다. 그대는 이제 그물에 걸린 나비 처럼 날개가 없어
 날아올 수도 없겠구나! 서산에 지는 달 빛이 방안을 비추니 그대의 얼굴
 이 달 빛 처럼 방 안을 비추는 것이 아닐까? 넓은 바다에 물결 치고 물
 이 깊어서 교룡 처럼 신비한 그대를 만나보기 어렵겠구나! (死別已吞聲
 生別常惻惻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故人入我夢我長相憶恐非平生魂路遠不可
 測魂來楓林青魂返閨黑君今在羅網何以有羽翼落月滿屋梁歔疑照顏色水深波
 浪濶無使蛟齋得)

기묘 황홀하게 生死觀을 표현한 詩라 하겠다.

11. 白 樂 天

醉吟先生 墓誌銘을 보면 다음과 같다.

樂天이가 이세상에 태어난 후 七十五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뜬 구름이 창공에 생기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고 인간의 죽음이란 탈바꿈하는 매미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어떠한 인연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의 행동은 가끔 변하는 것이다. (樂天生天地中七十有五年其生也浮雲然其死也委蛻然來何因去何緣吾性不動吾行屢遷)

또, 그 逍遙游에, 자기 몸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몸을 미워하지 말라, 자기 몸을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만겁에 번뇌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자기 몸을 미워할 것이 무엇인가? 쪼개지면 허공에 티끌 처럼 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이라야 소요인(逍遙人)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亦莫戀此身亦莫厭此身此身何足戀萬劫煩惱根此身何足厭一裂虛空塵無戀亦無厭始是逍遙人)

또, 술을 부어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물어보자. 옛적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귀한 것을 인간이라 함은 살아 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이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보자. 부귀와 빈천은 원래 타고난 것이며 근심과 기쁨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을 樂도를 통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즐겁게 살아보자 (把酒仰問天古今誰不死所貴未死間少憂多歡喜窮通源在天愛喜即由己是故達道人去彼而取此)

物慾과 名譽欲이 없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山水風月 詩歌琴酒를 즐기고 生者必滅 會者定離의 原則에 대해서 泰然自若한 樂天的인 詩人이라 하겠다.

12. 蘇 東 坡

宋나라 時代의 文章大家로서 佛敎에 歸依하여 參禪工夫를 했다. 어느

날 廬山瀑布 곁에 있는 禪房에 가서 밤에 坐禪하다가 폭포 소리를 듣고
활연대오(豁然大悟)하여 다음과 같이 詩를 읊었다.

변함 없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바로 무궁무진하게 설법하는 음성이라
할 수 있고, 우뚝 솟은 여산의 웅장한 모습이 청정법신(淸淨法身)이 아니
겠는가? 밤이 새도록 팔만사천 대장경 법문을 설한 것을, 후일에 어떻게
그 소식을 남에게 설명할 수가 있으랴!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것
이다. (溪聲即是廣長舌山色豈非淸淨身夜來八萬四千偈他日如何舉示人)

道를 通한 境地에서 보면 天森羅 地萬象이 모두 淸淨法身體 아닌 것이
없으며, 生死라는 것도 心海에 起伏하는 一波一瀾에 不過한 것이므로 生
에 대해서 기뻐하고 死에 대해서 두려워 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다고 한 것
이다.

13. 周 茂 叔

太極圖說에, 천(天)의 도(道)를 음과 양이라 하고, 지(地)의 도(道)를
유(柔)와 강(剛)이라 하며, 인(人)의 도(道)를 인(仁)과 의(義)라 하고,
시작을 종결이라 한다. 그러므로 생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立天之道曰陰與陽立地之道曰柔與剛立人之道曰仁與義又曰原始反終故知死生之說)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처럼 生이 있으면 반드시 死가 있다는 것
이다.

14. 程 明 道

죽음이란 어떠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生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는데 死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生이 무엇인가를 알면 死가 어
떻다는 것도 알 것이다. 시작을 알면 끝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 (未知
生焉知死知生則知死知始原則能知終)

또, 語默은 晝夜와 같고 晝夜는 生死와 같다.

生이란 死의 반대로 낮과 같이 밝고 밤과 같이 暗黑한 것을 죽음이라고
했다.

15. 王 陽 明

그가 28歲에 進士로서 佛敎에 歸依했을 때의 作品을 보면,

사람은 제각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관을 가졌으며, 온갖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는 근원이 모두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전일에 전도(顛倒)되었던 소견을 생각해 보면 우습기 짝이 없네! 깊은 곳에 참된 이치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나무 가지와 잎의 표면 같은데서 찾으려고 애를 썼구나! (人人自有定盤針萬化根源總在心却笑從前顛倒見枝枝葉葉外頭尋)

惟心所作으로 모든 진리가 마음속에 달려 있는 줄 모르고 형식적인 서적을 보거나 설명을 들어 알려고 했으니 자기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31세 때 石窟속에 들어가서 지은 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요하고 깨끗한 굴속에 혼자 앉으니 우주 전체가 고요한 것 같구나!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참된 이치를 버려두고, 남의 문 앞을 돌아다니는 탁발승에게 배우려 했었다. (無聲無臭獨自時此時乾坤萬有基拋却自家無盡藏沿門持鉢做貧兒)

미묘한 진리는 남한테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혼자 탐구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또, 그는 兵部主事가 되어 明나라 憲宗에게 極諫하다가 投獄 되어 死刑 당하게 된 것을 기적적으로 脫獄하고 배를 타서 閩江에 표류하다가 육지의 언덕에 닿아 산길로 해서 깊은 밤에 寺刹을 찾아갔으나 들여주지 아니했으므로 虎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누어 잤다. 그때 지은 詩에, 무서운 오랑캐가 살고 있는 들판을 갔다 해도 두려운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구름을 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꼭 같은 기분이다. 밤은 고요한데 3만리나 되는 먼이던 이곳 파도치는 넓은 바다를 건너와서, 달 밝은 이 밤에 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하구나! (險夷原不滯胸中何異浮雲過大空夜靜海濤三萬里月明飛錫下天風)

죽, 범의 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留宿했으나 猛獸가 그를 쫓치지 아니했다는 점으로 봐서도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죽음을 앞에 두고 구름을 타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공포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그가 生死를 超脫한 境地에 到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II 忠臣義士의 生死觀

1. 閔 泳 煥

李朝末 忠臣 字는文若 號는 柱庭, 韓日保護條約이 체결 되자 同胞와 各國 公使에게 聲明하는 遺書를 남겨놓고 自刎殉國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수치와 백성으로서의 욕됨이 이와 같으니 우리 백성들은 앞으로 또한 생존경쟁 속에서 죽을 것이다. 사람이란 구차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죽게 되는 것이며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도리어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치를 어찌 모르겠는가? 영환이는 한번 죽음으로써 임금의 흉운을 갚고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감사를 드리려는 바이다. 영환이가 비록 죽었다 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저승에 가서 여러분을 음으로 잘 도울 것이니 우리동포 2천만은 분투노력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학문에 힘쓰라. 마음과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한 후,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시킨다면 죽은 자가 저승에 가서도 꼭 기뻐할 것이다.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이별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國恥民辱乃至於此我人民將且殄滅於生存競爭之中大抵苟且要生者死期死者還生諸公何不諒此泳煥一死仰報皇恩拜謝我二千萬同胞泳煥雖死不死陰助諸君於九泉之下我同胞二千萬奮勵堅確志氣益勉學問結心戮力回復我自由獨立死者喜笑於冥冥之中訣告于二千萬同胞兄弟)

祖國의 光復을 위해서 身命을 草芥처럼 버린 閔公의 위대한 行蹟이 千秋萬代에 빛날 것이므로 公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2. 安 重 根

한국독립운동사를 보면 1909년 10월에 안중근이가 하르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사살한 후, 대한독립만세 3장을 부르고 여순옥(旅順獄)에 구치되었다. 일본사람이 그에게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하여 2백여일이나 옥에 가두어 두고 여러 가지로 위협도 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이르기도 했으나 그는 준엄하게 거절했다. 공판할 때에 그는 이등박문의 13가지나 되는 큰 죄목을 들어 유창한 웅변으로 두어 시간 동안 통쾌하게 반박했는데, 그의 눈에서 발하는 빛이 번개불 같아서 방청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일본인들이 결국 그를 극형에 처하니 때는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였다. 그가 형장에 서서 기쁜 표정으로 말하기를,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하여 죽는 것이므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리요! 하고 한복을 갈아 입은 후, 조용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 나이는 32세였다. (重根被拘於旅順獄日人欲取誣服滯囚二百餘日之間威脅利誘加以萬端而拒之甚峻及其公判重舉伊藤之十三大罪痛駭數時雄辯滔滔眼光如電傍聽者莫不色動日人竟處極刑以四二四三年庚戌陽曆三月二十六日上午十時重根立刑場欣然而言曰余爲大韓獨立而死爲東洋平和而死死何恨焉遂改着韓服從容就刑年三十有二)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온갖 苦難을 극복하고 비상한 수단으로 적의 원용을 무찌른 후, 欣然히 목숨을 바친 위대한 그 業績은 이 地上에서 永遠無窮토록 빛날 것이다.

IV 佛敎의 生死觀

1. 茶 毗 文

削髮篇에 生이란 어느 곳에서 오는 것이며 死란 어디로 가는 것이냐? 生은 한 조각 뜯 구름이 창공에 일어나는 것 같고, 死는 한 조각 뜯 구름

이 창공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뜬 구름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부터 구름이 아니므로 참다운 것이 못 되고, 生死와 去來도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물건이 몸안에 있어서 언제나 분명히 나타나 生死를 따라다니지 않는 것이다. (生從何處來死向何處去生也一片浮雲起死也一片浮雲滅浮雲自体本無實生死去來亦如然獨有一物常獨露湛然不隨於生死)

즉, 한 가지의 물건이 몸 안에 있다고 한 것은 精神이 体内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마음」 또는 「靈魂」이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生死가 없다고 한 것이다.

洗手篇에는 이 세상에 왔다고 하지만 참으로 온 것이 아니로서 밝은 달 그림자가 수 많은 강물 속에 비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해도 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 없는 맑은 창공과 같이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를 구성한 地·水·火·風 4가지가 제각기 흩어지면 꿈과 같고, 육체에 있는 眼·耳·口·鼻·身·意 6가지도 허망한 것이다. (來無所來如朗月之影現千江去無所去似澄空而形分諸刹四大各離如夢中六塵心識本來空)

즉, 地·水·火·風의 [地]는 머리털, 손발톱, 털, 이빨, 피부, 뇌, 근육 뼈, 골수, 때, 「水」는 침, 눈물, 고름, 피, 대소변, 모든 분비물, 「火」는 體溫, 「風」은 운동기관으로서 죽으면 地 水 火 風 四大가 제각기 흩어지는 것이므로 꿈과 같다고 한 것이며, 眼·耳·鼻·舌·身·意 六根도 아무런 役割을 못하니 허망하다는 것이다.

또, 着衣篇에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 어떠한 물건이며 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은 또 어떠한 물건이냐? 울적에나 갈적에 원래 아무 것도 없었다. 그 물건이 참으로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싶다면 창공에 흰 구름이 구만리 장천을 거침없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來時是何物去時是何物來時去時本無一物欲識明明眞住處青天白雲萬里通)

마음이라는 물건은 青天에 白雲처럼 拘碍되는 데가 없어서 生死를 따라

다니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2. 阿 舍 經

비유해서 말하자면 남자 1인이 부인 4명을 두었다. 첫째부인에 대해서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그 부인이 앉았다가 일어설 때와 걸어다닐 때며 일할 때나 누워 잘 때에는 남편이 그 걸을 떠나지 않고 음식과 의복을 먼저 주며, 추위와 더위라든지 배고프고 목마르지나 않을까 하여 어루만지며 잘 보호해서 그녀가 하고 싶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둘째부인에 대해서는 앉을 때와 일어설 때 이야기할 때에는 늘 그 곁에 있으며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걱정을 했다.

셋째부인에 대해서는 때때로 만나고 물질에 대해서 곤란하거나 몸이 피곤하면 서로 걱정을 한다.

네째부인에 대해서는 하인 처럼 천대시해서 노동을 시키고 일이 있을 때에는 그 곁에 가기도 하지만 보호하는 일이 없고 늘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을 때가 되어 첫째부인을 불러들인 후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저승을 갈 수 있겠느냐? 한즉, 부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함께 저승을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남편이 또 말하기를, 나는 그대를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매우 사랑해서 그대의 뜻에 늘 순종했는데 어찌 나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느냐? 한즉,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리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남편이 둘째부인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너는 나를 따라 저승을 갈 수가 있겠지?

부인이 말한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제1부인도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따라갈 수가 있겠소!)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너를 구할 때에 당한 그 고통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추위와 더위를 참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참

있던 것인데, 어찌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느냐?

부인이 말한다. (당신이 욕심 많은 사람으로서 나를 강제로 구한 것이지, 내가 먼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닌데, 어찌고생했다는 말을 하는가?) 하였다. 그 남편이 세째부인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저승을 갈 수가 있겠느냐?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으니 당신이 저승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간다면 성 밖에까지 당신을 전송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 더 멀리 가서 당신이 간다고 하는 저승까지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네째부인을 불러들여 말한다. (네가 나와 같이 저승을 갈 수 있겠느냐?) 부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부모와 이별하고 당신한테 와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사 고락을 같이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저승을 응당 따라가리라 하였다.

그 남편이 맘에 드는 부인 3명을 데리고 가지 못했으며 보기 싫게 생긴 부인 1명이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위에서 비유한 첫째부인이라한 사람의 몸뚱인데 인간들이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고 좋아하기를 그 남편이 첫째부인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하지만, 명이 끊어지면 몸뚱이가 땅에 자빠져서 저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둘째부인이라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물로서 이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얻지 못하면 걱정하는 것이지만, 죽으면 재화와 보물은 세상에 남아 있어서 저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세째부인이라한 부모, 처자, 형제, 친구, 사내종과 계집종으로서 생전에는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사모하되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슬피 울며 성 밖에 있는 무덤 사이에 나가서 시체를 그곳에 내버려두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온후, 슬피 울면서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10여일이 못 되어 다같이 음식을 들고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네째부인이라한 사람의 뜻으로서 천하에 자기 뜻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가 없고 모두 방자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가득차

올바른 도리를 믿지 아니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오직 그 뜻이 저승에 따라가서 지옥이 아니면 아귀 축생도에 떨어질 것이므로 조심하여 마음을 단정히 하고 뜻을 바르게 해야 되느니라 하였다. (譬一人有四婦第一婦夫之爲極重坐起行步動作臥息曾不相離飲食衣服常先給與寒暑飢渴摩順護視其隨所欲曾不與爭第二婦坐起言談常在左右會則喜之離則愛之第三婦有時會合窮困疲極適相思念第四婦給使作務事有則往夫嘗不護常放過時夫臨死呼第一婦言汝當隨我婦報言我不隨卿夫曰我甚重愛常順汝旨何不相隨婦曰卿雖愛我我能不隨卿夫呼第二婦曰汝當隨我婦曰卿之重愛第一婦尚不隨卿我何隨去卿夫曰我初求汝時其苦不可言觸寒逢暑飢耐渴何不相隨婦曰卿自貪慾強求我我不求卿何相語艱苦夫呼第三婦言汝當隨我婦曰我受卿之恩施送卿至城外終遠行能不到卿之所至處我第四婦言汝當隨我婦報言我離父母來卿給使死苦樂當隨卿之所到此夫意可之三婦不能得自隨但得苦醜者佛言上譬喻第一婦人之身人好愛身過第一婦至命終時身僵地不肯隨去第二婦人之財得是喜不得則愛及命終時財寶世間積在不肯隨去第三婦是父母妻子兄弟知識奴婢以生時之恩愛轉相思慕至命盡涕哭到城外塚間棄死人各自還歸愛思不逾十日便共飲食捐忘死人第四婦人之意天下自愛意者無皆放心恣意貪欲瞋患不信正道臨命終時惟此意隨去隨惡道是故當端心正意)

사람이 죽으면 愛之重之하던 몸뚱이와 처자권속이며 금은보화는 모두 세상에 남아 있고 다만 그 뜻이 자기가 지은 善惡과 함께 저승에 가서 因果應報를 받게 된다고 한 것이다.

V 結 語

諸子百家中에서 莊子는 생이 곧 死요 死가 곧 생이라고 해서 生死가 둘이 아니므로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여 生死를 達觀했던 것이다. 그러나 秦始皇은 생에 대해서 愛着한 나머지 不死藥을 求해다가 服用하고 오래 살기를 願했으며, 漢武帝 亦是 長生不死하려고 承露臺를 만들어 세워놓고 밤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 마셨으나 모두 虛事

었다고 한다. 蘇東坡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無窮無盡한 說法소리요, 우
쪽 솟은 山봉우리 그 自体가 바로 淸淨法身이라고 했으니 生死와 榮枯盛
衰가 어디 있겠는가? 人間 萬事를 超脫한 境地에 到達한 사람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李朝末 忠臣 閔泳煥은 祖國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면 肉体는 비록 사라졌다 하지만, 愛國忠情의 그 偉大한 精神은 永
遠不滅할 것이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 고 했다. 佛敎의 生死觀은 茶毗文에 生이란 구름이 창공에 일어나는 것
같고 死는 구름이 창공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뜬 구름이 허망
한 것 처럼 生死도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生死에 관계 없는 두드러진 물
건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들의 마음 즉, 영혼을 의미한 것이다. 一切唯心
造라 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제각기 부지런
히 마음을 닦아 生前에는 惡人이 없는 樂園을 이룩하고 死後에는 迷의 世
界를 떠나 不生不滅解脫 涅槃의 境地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
바이다.